

# MISSION DAY NEWS

Volume.5 2014년 10월

## 인천학원교회: 아시안게임, 세계선교의 기회로!

인천학원교회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마다 찾아다니며 전 세계 45개국 아시아 국가에서 온 선수들과 임원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재밌기별이 담긴 전도지와 책자를 전달했다.

지난 8월, 교회를 방문한 북아태지회 세계선교부장 권정행 목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선교활동을 했는지를 들려주었다. 담임 목사인 심경섭 목사는 교인들과의 의논을 거쳐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지를 준비했다. 외국으로 가지 않고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재림마을에 소식을 올려놓자 여러 사람이 전화와 현금으로 격려했고, 어떤 이들은 전도지 분급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시조사에서는 12,000원의 가정과 건강 잡지를 지원해주었다. 교인들은 저녁마다 모여 가정과 건강 잡지에 교회주소와 연락처가 새겨진 스탬프를 찍었다. 마침내 9월 20일 안식일 오후 1시, 온 교인들이 교회당에 모여 조를 편성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 네 지역으로 나누어 출발했다. 경기장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반응이 좋았다. 한 사람도 받은 전도지를 버리지 않았다. 교인들은 실로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라며 감격했다. 청년들, 장년들, 초신자들 뿐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까지도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다.

전도지가 보급된 후 두 명의 청년이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두 명의 여자가 영어교회를 문의하여 오기로 했고 관광객들도 교회를 찾아왔다. 물티슈 전도지,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이중언어 전도지, 가정과 건강, 영어 전도지 등, 모두 60,000장의 전도지를 전할 수 있었다.



ADVENTIST  
MISSION

발행인\_이재룡 편집인\_권정행 전화\_031-910-1526 Email\_mission@nsdadventist.org  
주소\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6번지 삼희플라자 7층 북아태지회 세계선교부  
뉴스레터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로 발행됩니다. www.facebook.com/KoreanAdventistMission

## | 에덴요양병원

에덴요양병원은 2014년 7월 3일 선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선교의 날은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기획된 것으로 에덴요양병원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병원 전 직원과 에덴병원교회 성도들은 3층 대강당에 모여 개원기념 및 선교의 날 예배를 드렸다. 박종기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이사야 54:2의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져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을 통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할 것을 권면했다.

기념예배 후에는 1,000권의 선교책자 발송이 이어졌다. 선교책자 발송을 위해 에덴요양병원은 김명호 목사에게 특별 저술을 의뢰하여 ‘기독교의 변질’을 제작하였다. 이 책은 안식일과 영혼불멸설 교리에 대한 역사적 변질을 기술하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소개하며 성경적인 종교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1,000권의 선교책자 발송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1,000명의 주소를 수집했고 직원들이 손수 봉투에 책자를 넣고 주소를 붙이는 작업을 하여 선교책자를 발송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 등단자들은 1,000권의 책에 손을 얹어 책이 도달되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재가 임하고 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한편, 에덴요양병원은 선교의 날의 연속 행사로 10월 1일에 전도지 분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 업무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행사에 동참하여 진행되었다. 병원이 위치해 있는 수동면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부서별로 나누어 6,000여 장의 전도지를 전했다.



## I 대만합회

대만합회는 지난 8월 31일, 9월 2일 이틀에 걸쳐 선교의 날을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양시간, 에어로빅, 건강세미나, 무료미용봉사, 책자배포, 길거리 청소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만합회는 사전에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기관장들에게 선교의 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첫째 날에는 대만합회 안식일학교부장 짐 쉬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찬미를 소개하고 가르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주민들은 찬미를 처음 접했음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배우며 큰소리로 따라 불렀다. 짐 쉬 목사가 기도할 때에는 모두가 큰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짐 쉬 목사의 사모는 에어로빅을 선보였는데 지역사회 기관장들은 이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머지않아 강사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총무부장 심금의 목사는 광화학 반응에 관련한 건강기별을 전했는데 날마다 다른 색깔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 외에도 두 명의 미용사가 자원하여 무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날 순서에 참여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책자를 나누어 줌으로 선교의 날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

총 25명의 구도자를 선교의 날 행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선교의 날을 통해 대만합회는 지역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를 하나 세우게 되었다. 구도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머지않아 이들을 후속 프로그램에 초청할 계획이다. 선교의 날 연장으로 9월 2일에는 반나절 동안 그룹으로 나뉘어 길거리 청소활동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 기관장들은 대만합회에 선교의 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본을 보임으로 선교사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 일본 하코다테 삼육보육원

일본 하코다테 삼육보육원은 6월 3일과 4일에 이틀에 걸쳐 선교의 날 행사를 가졌다. 25명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시 스미다 원장은 요한복음 15:16-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코다테 삼육보육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선교사명을 검토했다.

토시 스미다 원장은 이 시간을 통해 ‘직원들은 그들의 경력이나 연한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고 그들의 사명이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이들의 생활방식과 성장 과정에도 전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코다테 삼육보육원은 올해로 창립 47주년이다. 선교의 날을 통해 직원들은 이 보육원이 세워지기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코다테 삼육보육원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도전들을 극복해왔다. 교인들은 보육원을 위해 영적,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나 보육 아동을 돌보아 온 보육원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가정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게 시작된 이 사업은 어린이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이 보육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이곳에 모였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보육원 운영을 위한 선교사명과 함께,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선교의 날은 직원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 | 2014년 선교의 날 일정

10월 4일	Chosen Vessel(1000MM)
10월 18일	부산위생병원
10월 26일	Chosen Vessel(1000MM)
10월 27일	삼육보건대학교
10월 27일	서중한합회
11월 12일	SDA 교육
11월 30일	Chosen Vessel(1000MM)
12월 5일	삼육치과병원
12월 24일	대만삼육대학
12월 28일	Chosen Vessel(1000MM)

위의 선교의 날 일정은 현재까지 보고된 날짜에 한하여 정리되었습니다. 아직 일정을 정하지 않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기관은 속히 일정을 정해주셔서 mission@nsdadventist.org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변경된 경우 위의 메일주소로 알려주시면 본 일정표에 반영하겠습니다.